

# “방심 금물... 수능 해방감 자제”

방역당국, 코로나 소규모 유행... 비수도권 30.2→31.1%  
20~30대 젊은층 비율 10월 22%→11월 29%→12월 32%

방역당국은 작은 방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폭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은 지난주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 겨우 급격하게 증가 하던 상승세가 잠시 억제된 상황에 불과하다”며 “조금의 방심으로든 언제든 폭발적 환자 증가가 가능하다. 결코 느슨해질 수는 없는 시기”라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40명이다. 전날(511명)에 이어 이틀째 500명대다. 최근 2주(11월20일~12월3일) 간 확진된 인원은 6035명에 달한다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집단발생 38.5%(2348명), 선행확진자 접촉 35.0%(2131명), 조사 중 15.8%(962명), 해외유입 및 관련 5.9%(360명), 병원·요양병원 등 4.8%(294명)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의 상황은 전국적으로 소규모 유행이 지속해 발생하는 상황이다. 발생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7.5%로 가장 많다. 서울 38.0%, 경기 23.9%, 인천 5.6%이다. 그러나 부산 4.3%, 강원 3.8%, 경남 3.7%, 충남 3.3%, 전북 3.2%, 충북 2.7%, 광주 2.2%, 전남 2.0%, 경북 1.5%, 대전 1.0%로 비수도권에서도 조금씩 환자 발생이 느는 추세다

49주차(11월29일~12월3일) 기준 하루 평균 확진자는 수도권이 311명, 비수도권이 140명이다. 전국 확진자 중 비수도권 확진자가 31.1%로 48주차의 30.2%보다 증가했다.

20~30대 젊은층의 확진 비율도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10월 22.3%, 11월 28.7%, 12월 1~3일 32.3%이다

이 단장은 “현재 유행이 지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감점모임에서의 방역수칙 미준수 신고 사례가 빈번해진 점을 들면서 “사실 유행 발생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도 발생해 어느 곳, 어느 모임에서나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속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장은성 기자

어느 모임에서나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능을 매개로 한 전파가 확산 될 것을 경계하며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자제를 부탁했다

이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역사상 처음 있는 힘들고 특별한 수능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한 가지 더 부탁한다”며 “그간 힘들게 공부해왔던 시간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만큼은 압박감을 풀고 마음껏 즐기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함이 안타깝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본격적인 대유행기를 맞아 길고 힘겨

운 싸움을 하고 있다. 어느 때 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가급적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개인위생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는 “수능 이후에도 입시 전형이 계속되므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애써 공부한 수험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든 분들의 공동의 노력을 부탁한다”며 “빠른 검사와 확인(진단)이 중요하다. 검사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위험에 노출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증상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뉴시스

## “예비 청년농부가 키운 친환경 배추”

전북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홍보·판매 행사

전북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ONE-YEAH(원예)협동조합은 직접 재배한 배추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사전 예약을 통한 제한된 인원만으로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 부속농장 캠퍼스 일원에서 열렸다

협동조합은 현재 과수·채소·화훼분야 작목반으로 포도동 정직한 배추, 아이허브유 등 3개 작목반을 운영 중이며, 각각 포도, 배추, 허브류 등을 재배하고 있다

이준구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부단장은 “학생들이 직접 재배한 친환경 배추를 선보이는 행사를 기획했다”며 “배추 파종부터 정식, 재배, 관리, 수확에 이르기까지 모



든 과정을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예비 청년농부로서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홍근 지도 교수(원예학과)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많은 요즘, 영농창업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활력을 주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예비 청년농부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조우석 정직한 배추 작목반장은 “주변 사람들을 마음 편히 만날 수 없었던 우울한 시기에, 싱그럽게 자라는 배추를 마주하며 활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장영달, 대한체육회장 출마 선언

“대한민국 체육인 위해 선봉”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이 대한민국 체육인들을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장 총장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강신욱 단국대 교수, 윤강로 국제스포츠의교연구원 원장,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에 이어 장 총장이 대한체육회장에 출마표를 던졌다

대한민국 체육이 위기라고 밝힌 장 총장은 “현재 대한체육회는 체육계를 분열시켰으며 체육인과 국민 모두의 관심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며 “체육계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체육과 스포츠가 국민 모두의 것으로 사랑받고 다시 존중받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20년 체육을 통해 민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독립운동의 하나로 시작된 대한민국 체육의 역사 100년은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스포츠 강국들을 제치고 세계 톱10에 진입한 대한민국 체육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온 비보”이



고 주장했다. 장 총장은 “풀뿌리 체육인들의 힘으로 체육계가 변할 수 있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대한체육회가 대립을 할 것이 아니라 협력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 및 협조체제를 강화할 것이며,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체육계에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장 총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 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장 총장은 “12월 1일자로 유감해석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체육회장은 비상임 임원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뉴시스

##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손해사정사 12명 배출

전국 10여 개 대학 중 합격률 1위

전주대 금융보험학과에서 총 12명의 손해사정사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 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국 10여 개 대학 중 합격률 1위다

올해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률은 전년 대비 0.1%p 하락한 15.1%다. 그마저도 31세 이상의 재직자 및 일반인의 비율이 61.7%에 달해 전주대에서 학부생 12명을 배출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다

높은 합격률의 비결은 손해사정사로 특화된 교과과정과 그 분야 실무경험

이 있는 최고의 교수진 그리고 선배 간 밀착지도와 정보 교류에서 찾을 수 있다. 방학 기간에도 교수들이 학교에 나와 기숙형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과목별 전문 강사의 특강을 통해 각 과목의 이론적 기반을 다진다. 학기 중에도 현업에 종사하는 손해사정사 선배들이 야간까지 후배들의 공부를 돕고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이경재 금융보험학과장은 “교수, 동문, 재학생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손해사정사를 배출하고 있다”며, “졸업생들이 손

해사정 분야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학부모 온라인 양성평등교육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윤애)는 도내 영유아 및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0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줌(xoom)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성인지 관점에 기반한 건강한 성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한 교육으로 이를 통해 양성평등한 성역할의 기초가 되는 유아부터 초·중·고 학생들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학부모 대상 교육기회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1차 교육은 11월 20일 ‘유아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교육 하는 아빠로 알려진 박재균 강사가 ▲성경과성으로 살펴본 변화 ▲성(性) 소통은 계단식으로 하라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12월 3일 진행한 2차 교육은 올바른 성인자립수성 함양 및 성차별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사춘기 미디어에 빠진 우리 아이 성교육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까?란 주제로 이신애 강사가 ▲미디어 환경의 실태 ▲불법 촬영과 촬영 구분짓기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펼쳤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